

방재시험소의 출발

그 동안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심석리 31,320 평의 대지 위에 연면적 2,000 여평의 규모로 건립 중이던 당협회 방재시험소가 멀지않아 출발을 하게 되었다.

영국의 보험 업계 시험소가 문을 연 것이 1889 년이었으니 선진국에 비해 우리 보험 업계는 거의 100 년이나 낙후된 것이요, 중공에 비해서도 20 여년이나 늦었으므로 “너무 늦었다”는 한탄이 나옴직도 하다.

그러나 그들이 걸어간다면 우리는 뛰어서라도 기필코 그들을 능가하겠다는 각오를 한다면 심한 격차도 점차 좁혀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구미 제국의 보험 시험소가 화재에 대한 연구, 물품의 안전도 검사 등의 분야에서 누구보다도 앞장서 왔으며, 세계 대전 기간 중에는 주요 시설물에 대한 방호와 국방 과학 연구에까지 참여함으로써 국가 방재를 이끌어 온 결과 국민의 신망을 받아 온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그런데 보험 업계의 laboratory 라고 하면 흔히 testing 위주형(FIRTO 등), research 위주형(AZT 등), training 위주형(IRI 등) 등등 그 종류가 다양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정으로는 우리 협회가 이 여러가지 분야를 한꺼번에 담당해야 할 처지이며, 그 외에도 fire protection association 과 insurance service 라는 본래의 기능도 동시에 수행하여야 할 입장이니 그 사명이 막중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어려운 입장 외에도 시험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적으로 손 꼽을 수 있는 문제는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이다. 미국의 UL 이 보험 산업의 재정 지원을 완전 탈피하여 독립하기까지는 75 년이나 소요되었고, 현재에도 미국의 UL 과 캐나다의 ULC 를 제외한 선진국 보험 시험·연구소 중 재정 자립을 이룩한 사례가 없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때 보험 시험·연구소의 근본적인 목적은 수익성의 추구보다는 사회에의 봉사성에 있음이 자명한데 과연 이러한 개념의 정립이 우리 보험 업계에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 우려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별로 축적된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우리 시험소가 선진국과의 기술 갭을 어떻게 메우느냐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선진국 기관의 Know-how 장벽도 있어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시험소 운영을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미완이다.

이러한 여러 불리한 여건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사례 연구, 제도적 뒷받침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과 부단한 연구 정신·창의력의 발휘가 무엇보다도 요청되고 있다 하겠다.

시작이 반이라니, 우리 협회 임직원 모두가 힘을 합하여 새로 출발하는 방재 시험소를 특히 이끌어 나갈 결심을 새삼 다져야 하겠다. *